

○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경제적 태도와 자세

유지미 <<< 장로회신학대학교 초빙교수 / 신약학

최근 두어 달 새 도산 및 폐업한 자영업자가 42만 명에 이른다는 정부 통계가 있었다. 실질실업자 수도 400만 명에 육박한다고 전해진다. 작년 4/4분기부터 급랭한 국제 금융시장의 영향은 국내 경제 곳곳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며 여러 경제 지표들에 영향을 주고 있다. 2008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5.6%를 기록했는데, 이는 외환위기가 시작되었던 1998년 1/4분기 이후 가장 최저의 기록이며, 요사이 국내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10년 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의 거부할 수 없는 근거가 된다.

세상을 살면서 부딪치는 복잡다단한 여러 문제들 중 ‘경제’ 문제만큼 인간의 삶을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지배하는 부분이 있을까 싶다. 인류가 생존해 오면서 겪어 온 수많은 문제들도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결국은 대부분 경제적 문제로 귀결되는 여러 현상들 또한 볼 수 있다. 게다가 보다 융통성 있는 경제 활동을 위해 화폐를 사용하며 잉여가치의 축적을 삶의 중요한 방편으로 여기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경제의 의미와 영향력이 지대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세계적으로

실물경기가 빠르게 악화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면서 외환·주식·채권시장 모두 연일 휘청거리고 있다. 특히 국제 금융위기의 불길 이 달 안에 잡히지 않으면 국내 금융시장은 3월 치명적인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3월 위기설' 까지 등장하게 만든 현 경제적 난국은 서점가에 갖가지 처세술 담은 방안을 시위하듯 내놓고 있지만, 결국은 그 많은 지침들은 일본 속담 '큰 바람이 불면 목수가 돈을 번다' 식의-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물질에 대해 집착하고 이익과 연결시키라는-선도 방식으로 귀결된다. 진정 경제위기의 해답은 세상 처세술이 가르치는 대로 있는 힘을 다해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것일까? 오히려 이 시점이야말로 근시안적인 시야를 전환해서 세상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성경 말씀 안의 가르침을 절실히 사모해야 할 때일 것이다. 특히 본고를 통해서도 말씀 가운데에서도 신약성경 중 우리의 경제적 문제에 해안이 될 사항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소유권 반납: '내 것 아닌 하나님의 것'

요사이 회자되는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분석하는 의견이 많다. 금융기관에서 각종 투기를 통한 거래로 창조된 무형의 거대한 가치가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면서 결국 실물경제의 근간을 흔들게 되어, 오늘날 부동산 하락 상태와 금융기간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들여다보면 문제의 시발점은 최대한 자신 명의로 많은 것을 쌓아 놓으려는 인간들의 경쟁적인 노력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유하려는 노력은 수직 한계점(vertical limit)이 없다. 일단 시작된 소유욕은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분야로의 소유욕을 낳고 일상의 모든 노력은 무의식적인 소유욕을 배경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 소유욕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ego-centric) 감정을 수반하므로 소유욕에 골

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나 이타적인 사명에 둔감할 가능성이 커진다. 마가복음 1장 16-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시몬과 안드레가 이에 순종하여 ‘곧 그물을 버려두고’ (18절)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들은 어부들의 생업의 중요 수단인 그물을 버림으로 제자의 삶을 시작한다. 더 나아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심지어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20절) 예수님을 따라나선다. 누가복음 14장 33절은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제자로서의 삶의 선결조건에서 소유에 대한 포기를 명하고 있다.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제자의 삶에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소유물 자체가 모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의 것이었다. 실상 삶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나타나는 정신적 불안감들은 결국 지나친 소유욕에서 기원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14-30절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모습과 그분에 의해 각각 단지 맡김을 받았을 뿐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맡은 바 된 청지기는 그 소유를 주장할 권리도 의무도 없이 단지 맡기신 기간만큼 잘 관리하도록 명받았을 뿐이다. 단 맡은 기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주인의 소유를 잘 간직하고 좋은 기회에 소유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만 결국은 주인의 소유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소유에 대해 집착하려는 인간의 마음을 제어해 주는 중요한 원칙으로 성경 안에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희년’(禧年, jubilee) 제도가 있다(레 25:8-10). 희년이 되면 땅과 집이 원 주인에게 돌아가고 노예가 해방되며(레 25:39-41) 부채가 면제되었다(신 15:1-3).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년의 선포가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취임설교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

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눅 4:18-19). 예수님께서서는 이사야서의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하신다. 소유에 대한 포기를 중요 내용으로 하는 희년 정신은 예수님의 생애의 중요한 뜻대였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받아들이는 신앙인들에게 그분의 생애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 즉 소유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과도한 욕망으로부터의 해방

로마제국 시대에는 로마 전체 인구 중 1%를 차지하는 귀족 계급이 로마 전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극심한 빈부 격차가 존재했다고 알려진다. 가진 이들이 현재 가진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이미 가진 것을 기반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경주한 노력들이 결국 갖지 못한 이들과의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내어 극복하기 힘든 사회적 불균등 현상을 빚어냈다는 것이다.

현대 경제 상황에서도 비슷한 양상들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 많이 가진 자가 더욱 많은 것을 갖게 되는 현대판 정글의 법칙 아래에서는 너도나도 가진 자의 대열에 들기 위해 과욕을 품고 덤비게 된다. 아마도 경제위기를 처음 촉발하게 된 요인으로 주목되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초반에 각광을 받은 것도, 이 같은 사회적 격차를 뛰어넘고 싶은 저소득층의 ‘로또’ 식 환상을 품은 몸부림이 집산된 현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서브프라임의 신용등급을 가진 시민들에게도 주택을 담보로 무분별하게 대출이 이루어졌기에 많은 이들이 신용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탐

욕에 눈이 멀어 다시 돌아올 부메랑 베팅을 한 것이다. 신용도가 낮은 이들은 상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이 보통 대출을 꺼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대출을 해준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부동산버블” 때문이었다. 당시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투자자들과 월가은행들은 이 같은 모기지론에 적극 뛰어들었다. 그러나 수요급증으로 집값이 20~30%로 연일 하락하였고, 대출자들의 상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집을 압류한다 해도 떨어진 집값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되니 엄청난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서 증발되었다. 그 여파로 100년 넘게 존속해 온 월가 은행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확산되면서 현 위기에 도래한 것이다.

결국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욕과 또 이를 분별 없이 조장한 금융권의 과욕이 이같은 엄청난 파장을 지구촌 가득 몰고 와 함께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세계경제의 위기는 금융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자본금의 카지노식 투자를 근절하고 적절한 금융 규제 속에서 개선을 하면서 실물경제에 활성화에 전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누가복음 12장 16-21절에는 한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한다. 그 밭에 소출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그는 저장 공간의 크기에 대해 고민할 정도였다. 그래서 그는 기존의 저장 공간을 허물고 더 큰 공간을 신축한 후 많은 소유를 쌓아 놓고 여러 해 평안히 쉬게 될 것에 즐거워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생해서 많은 소유를 쌓아 놓고 안락을 갈구하는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신다. 결국 그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라는 질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디모데전서 6장 9-10절에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자본주의의 경제체제가 너무도 익숙한 우리에게는 다소 친해지기 어려운 구절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소유의 무한정 축적을 조장하는 수많은 모범 가운데에서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는 중요한 자세는 물질을 향한 과도한 ‘욕망’ (desire)으로부터 나를 비우는 일이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죽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 13:5).

지나친 욕망은 불안의 표현이다. 현재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불안한 미래를 대비해 한정 없이 쌓아 두고자 하는 마음은 현재의 상태에 자족감이 부족할 때 생겨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 ” (마 6:25-34).

나누며 베풀며 …

“신실한 사랑의 행동은 물건을 나누어 가지는 삶에 의해 나타나며 나누어 가지는 삶에 의해 실현된다”(Luke T. Johnson, *Sharing Possessions: Mandate and Symbol of Faith*). 미국의 기업가이자, 자선사업가, 철강왕으로 유명한 앤드류 카네기(Andrew Carnegie, 1835~1919)는 세상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사업가는 돈을 버는 시기와 돈을 쓰는 시기가 있다. 부자인 채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신실한 기독교인으로도 알려져 있는 그는 평생 사업을 통해 얻은 재산을 아낌없이 자선사업에 헌사했던 이로 알려져 있다. 치부에 골몰해 비윤리적 기업경영을 대세로 믿는 현대적 기업문화 가운데 경종이 되는 중요한 모범으로 여

겨진다.

우리는 신약성경 안에서 공동체를 배려하는 적극적인 경제행위의 하나로 자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대표적 인물로 바울을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바울에 따르면, 그의 모금 사업은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동들’과 만났을 때 착안된 것으로, 일차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의 재정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측면을 과소평가하는데, 이것은 모금의 다른 영역을 강조하려는 관심에서이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바울이, 예루살렘의 종속을 의미하는 치욕적 부과라는 모금의 진짜 목적을 위장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것이 바울에게는, 기독교적 믿음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필요한 표현이었던 적합한 노력이었다는 점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도행전이 보도하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은 이 같은 공동의 경제문제 해결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유대교 안에서 이 같은 경제 활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것은 오순절 이후 새로이 기초된 신앙의 공동생활이 형태를 결정하는 데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종말의 압박을 느끼면서, 그들은 이상적인 경제적 관계를 설립하여 누군가의 남는 것은 다른 이의 모자라는 것을 채우도록 권했다(행 2:42, 44; 4:32, 34; 5:1). 이러한 정신이 잘 표현되었던 예는 공동식사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제의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행 2:42, 44; 6:1). 그러나 여기서 발생한 문제는 부자에 비해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재정적 구조를 압박하게 되었던 것이다. 흔들리는 경제 구조에다 식량 부족까지 겹쳐져서 예루살렘의 상태는 최악의 상태였다. 그리스도인의 자선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요소였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압박하는 경제적 필요를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이방 교회들이 이러한 그리스도교적 나눔에 참여하도록 활성화하는 것을 환영했다.

사랑이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라고는 하지만 늘 그 사랑의 결핍 때문에

비평받는 종교가 기독교이기도 하다. 독선적이고 배타적, 이기적이라는 비난이 빈번한 가운데 최근 개신교의 대표적 지도자들 12명이 나서서 이웃사랑 ‘나눔 운동’에 앞장선다는 기사가 오랜만에 반갑게 들린다 (www.chosun.com 2009년 2월 24일자). 이들은 성명에서 2009년 한 해 동안 교회에 내는 십일조 헌금을 제외한 사례비의 5%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고, 교회 예산은 최대한 간축하되 구제비는 훨씬 증액하며, 가급적 지역의 작은 교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했다.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누겠다고 마음이야말로 기독교의 정신을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 주는 중요한 첫 걸음이 아닐까 싶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천국에 대한 비유 중 마지막 내용인 ‘양과 염소 비유’(마 25:31-46)에서는 마지막 심판을 받는 대상들을 두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그 구분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문한다. 이어지는 임금의 답변은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였다. 주변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작은 사람에게 베푸는 내 손길이야말로 그분을 접대한 동일한 손길로 기억된다는 것이다. 얼마나 베풀 수 있느냐, 얼마나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눌 수 있느냐의 마음이 마태의 신학에서는 천국의 입성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만큼 중요한 신앙인의 표지라는 의미이다.

경제 위기의 주범은 누구?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Time)은 2009년 새해를 맞아 1월 2일(현지시간) 경제 위기의 주범(또는 요인) 12명을 지목했다. 이 가운데에는 장기 호황, 과잉유동성, 비뚤어진 규제 등 대부분이 공감하는 항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유독 눈길을 끄는 한 주범이 있었다. 그것은 바

로 ‘당신과 나’(you and I)였다. 즉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으로 집을 산 보통의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 것이다. 현 경제위기의 시발점에는 분별없는 부동산거래가 문제가 되었던 바, 결국 세계 경제라는 큰 흐름 가운데 세태만 탓할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그 흐름을 조장하고 동참하고 결과를 만들어 내는 주체야말로 다름 아닌 우리 자신 각자라는 메시지가 있다. 특별히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지음 받은 기독교인들이라면 나 하나의 경제관과 그 가치관에 부합한 행동 하나가 결국 큰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보기엔 내 손에 있는 것 같지만 내 것이 결코 아닌 소유를 원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 드리고, 내 삶을 비천하게 몰고 가려는 과도한 욕망에서 헤어 나오길 간구하며, 여력을 다해 내게 허락된 것을 부족한 이웃들과 나누려는 마음과 자세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경제 정의가 조금씩 싹틀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선적으로 갈구하고 내 삶의 소중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말씀의 ‘중심’을 잃어버린 자리에, ‘미네르바’의 ‘입심’이 기세를 떨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 **유지미** 연세대학교(Th.B., Th.M., Ph.D.)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에서 공부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강사 및 연세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지금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초빙(강의전담)교수로 있다.